

목록

1999.5_1.....	1
1999.5_2.....	2
1999.5_3.....	3
1999.5_4.....	4
1999.5_5.....	5
1999.5_6.....	6
1999.5_7.....	7

그림비

문헌정보학과 소식지

No.18

(1999년 5월호)

편집 : 문헌정보 학술평집부
편집인 : 학술부장 이 상 욱
발행 : 문헌정보 학 생 회
발행일 : 1999년 5월 31일

내용 글 미리보기

낙산대동제에서...

토폰 마당

학술란

종로도서관 소개

문헌정보소식

문헌정보 학생회에서..

詩가 있는 자리

선배님! 우리 선배님

아름다운 글 - 엄마

문정과에 바란다~

혹시, 이런거 아세요!

상품이 보여요!

! 여러분, 이게 아세요?

- 정정합니다.
지난호 그림비 발행횟수를 '창간호'에서 '17호'로 정정합니다.
- 지난 4월 23일 한국문헌정보학회가 본교 소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벌써 1학기가 끝났군요..
- 군에 입대한 '97 이종원 군이 뜻밖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낙산대동제에서 문헌정보는...

낙산대동제는 교육투쟁, 대학인 고용실업문제, 학생회 강화를 기조로 19일부터 사흘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개막집회를 시작으로 둘째날 단대별 행사, Cass가요제, 낙산가요제, 댄스페스티벌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날은 폐막제와 대동놀이가 이어졌는데, 폐막제는 길놀이 시작하여 가수 김장훈, 민중가수 최도은 공연과 연극등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진행되던 주점들은 과의 특성을 살리는 테마의 주점으로 변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과는 이번에 학부제로 통합되서 인문계열의 주점을 하였는데, 다소 마찰과 충돌이 있었으나 대체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행사로는 문화부 중앙공연과 조사홍보부의 사진전시회가 있었고, 새내기 장기자랑에서는 인문계열이 3등을 해서 더블카세트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Cass가요제에서는 우리과 98학번 류삼열 학우와 박주화 학우가 참가하였으나, 예선에서 탈락해 주변학우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대동제에서 아쉬웠던점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그에 반해 참가하는 학생수가 적지 않았나 합니다.

다같이 참여하는 대동제였으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대동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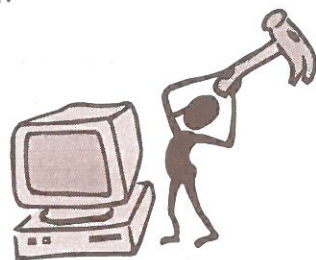
'96 김선희

● 토론 마당

온라인 성폭력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의 토론은 유니텔 네티즌들의 주장 및 의견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정리 게재한 것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21C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컴퓨터 통신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 해결방안으로 크게 통신사 측에서의 해결방안, 법적인 처벌강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통신사측에 대한 요구가 네티즌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방안보다 많았는데, 그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내용은 우선 운영자측이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이러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위험과 대응방안 등을 안내해 주어야 하며, 신고센터의 담당자를 따로 두어 보다 확실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해자의 아이디를 공개하여, 다른 통신인들이 조심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현재 온라인 성폭력이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라는 법적 처벌대상이며, 이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 정동채님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의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강화노력을, 국회의원 이미경님은 각 통신사들에 성폭력 방지 문구를 게재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법안의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온라인 성폭력 해결에 한층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법적인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그 이유로 들어주었다. 이를 대신하여 개인들의 자율적인 통신문화 형성의 노력과 통신사 측의 대응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함을 역설해주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으로 피해자 개개인들이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고, 가해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법적 규제인가, 개인의 자각인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특히 청소년층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게임방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정말 의문스럽다. 육체가 멀쩡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지나친 정보(쓸모없는 정보)로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는 다음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97 김소희

● 학 술 란 (인터넷 정보설계사 뜨고 있다)

인터넷 경제의 제 2차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이트를 대폭 손질, 고객의 입맛에 맞는 사이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배가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정보설계사(Information Architecture)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설계사는 실제 집을 설계하는 건축설계사처럼 인터넷에서 집을 설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정보설계사는 아직 생소한 말이지만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기업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연성'에만 주목, 제대로 된 집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젠 이러한 생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정보 설계사들은 지적했다.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제대로'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투자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보 설계사가 지녀야 하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한다'는 점이다. 최고의 웹 사이트 제작자는 경험이 많은 웹 사이트 이용자, 즉 고객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고객들의 유형을 파악,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보 설계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정보 설계사가 될 수 있을까.

우선 문헌정보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좋다. 정보학에 대한 지식은 페이지들과 전체 사이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간의 관계 흐름'을 정의하는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진보적인 사서(Cybrarians)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정보 설계사는 따라서 정보를 가장 편리하게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이트가 목적하는 것을 최상으로 해결 수 있는 분류체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한 사이트의 경우(www.city.net/regions/caribbean),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체계를 이용했다.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은 이용자들을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 www.gm.com)의 경우 실행항목으로 구성된 작업메뉴를 제공한다. 이런 방법으로 GM은 다양한 사용자들을 특정한 웹 사이트로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중요성과 함께 또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장 편리하게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초기 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자료가 적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속될수록 추가되는 자료로 사이트는 복잡해지게 된다. 이때 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검색 기능을 추가할 시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어떤 식으로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이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에는 사이트만으로 운영되는 기업들도 대거 생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92 김병수

● 종로 도서관

1. 도서관 소개

종로 도서관은 1920년도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 도서관이다. 뒤로는 인왕산을 두고 앞으로는 사직공원을 바라보고 있어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쾌적한 도서관이다. 종로도서관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항상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다.

2. 자료검색

- ① 종합자료실(1층) : 어문학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도서 및 참고도서를 비롯하여 고서, 구일서, 300여종의 학회지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 ② 어문학 간행물실(도서관입구 계단옆) : 최신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어문학 관련주제의 도서 및 각종 신문, 전문잡지, 일반 교양지, 정부 간행물등이 비치되어 있다.
- ③ 생활정보자료실(2층) : 기업체 사보 및 취업정보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관내 전시회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 ④ 일반열람실(1,2,3층) : 본인이 가지고 온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서 6개의 열람실에 662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3. 도서관 이용 시간

일반 열람실: 06:00 ~ 22:00

자료 열람실: 09:00 ~ 19:00(20:00)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엔 쉰다.



4. 특색 사업

- ① 학회지 기사 제공 서비스
300여종의 학회지를 구입해서 주제별로 소개한다.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
- ② 성산문고 운영
성산문고는 1987년 10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시영 아파트에 공영건물(독서실)을 무상임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자료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③ 또한 문화교실을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의 기회제공하고 있다. 운영기간 : '99년 1월4일 ~ '99년 6월 30일(6개월과정)

'98 김은희

● 문헌정보 소식

● 2학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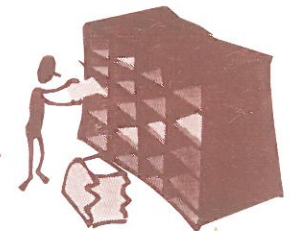
- 5월 17일
79년생 98학우들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장미꽃 20송이하구 뽀뽀는 다들 받았는지??? *^^*
모두모두 추카해 주실꺼죠???
- 5월 21일~22일
2학년 MT를 다녀왔어요...
대성리 유스캠프타운에서의 강란의 1박 2일이었습니다.
'얼음땡'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좋았구요,
예쁜 포~~~즈로 사진도 찍었구요... 정말로 잊지 못할 즐거운 MT였습니다.

● 3학년 소식

- 5월 7일~8일 우이동으로 MT를 다녀왔어요.
이날 술도 많이 마시고 즐겁게 게임도 하면서 친구들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5월 13일
색인초록시간(이우범 교수님)에 홍릉에 있는 KINITI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4학년 소식

- 5월 13일
졸업사진 촬영...
저녁에는 나이트에 가서 마지막(?) 젊음을 불사르고 왔습니다...
- 5월 21일~22일
졸업 MT를 강촌에 있는 예린 민박으로 갔다 왔습니다.
'92 모선배가 구워준 삼겹살에 모두 감탄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구요.
마지막 MT라 그런지 모두가 새벽 늦게까지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간 학교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MT가 되었다고 하는데..부럽지요?



● 학생회 소식

- 4/23일 오후 2시 소강당에서 문헌정보학회가 개최되었구요..
- 4.30 참가단에 학생회 학우님들이 참가하셨습니다..
- 5월 15일 스승의 날 각 학년에서는 선물과 편지를 교수님들께 전달했습니다.
- 5·18정신계승과 자치학원 건설을 위한 한성인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 소모임 'M&L'(Movie and Life)이 '98 박주화양을 짱으로 활동을 합니다.
주활동으로는 영화감상과 토론, 동기사랑, 선후배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뒷풀이 등.
- '고성방가'가 '98 류삼열군을 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소모임일까요?
- 정보검색연구회가 '97 김지영양을 회장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소모임이 아니라 문헌정보학과에서 창단한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많은 계획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도교수님이 누구일까요?

'98 김지혜

● 문헌정보 학생회에서..

수퍼맨 시리즈 -① 취직을 하려거든 수퍼맨이 되라...??

문헌정보 학생회장 '97 성민지

결코 웃을 수 없었던 졸업앨범 촬영장에서....

얼마 전에 4학년 선배들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다. 졸업사진 촬영을 앞둔 선배들의 잔뜩 긴장한 모습은 단순히 사진이 얼마나 근사하게 나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현 사회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자리는 실업에의 위기의식에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주변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리해고자와 실업자, 미취업자들... 실업자 450만 시대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선배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번 토익시험을 잘 못 봤어... **기업 들어 갈려면 최소 900은 넘어야 한데... 내일부터는 도서관에 다닐려구..." 하는 선배들... "전공과목이 재미는 있는데.. 취직하기에는 비전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컴퓨터와 영어학원을 다닐려구..." 하는 선배들... "나만 잘하면 되지... 수면시간 좀 줄이고 공부하기루 했어... 올 방학에는 자격증 따려구... **는 벌써 세 개나 땀다더라." 하는 선배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한, 옆사람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 스스로가 노력하면해서 수퍼맨, 수퍼우먼이 되면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될까?

내 개인의 노력으로 좋은 학점을 받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고용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② 지금의 실업의 세상....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IMF이후 김대중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경제위기'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국가경제가 어려워니 우리모두 허리띠 졸라매자', '기업이 어려워니 너희가 조금만 희생해라'라고 이야기하며 진행된 구조조정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조여오고 있다. 수많은 대기업들은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을 통해 인원감축정책을 실시하였고, 소수의 독점재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됨으로써 실업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십 수년간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일 할 권리를 정리해고라는 이름하에 빼앗아 감으로써 450만 실업자와 수천에 달하는 거리의 노숙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③ 우리가 수퍼맨이 되면 취업의 문이 열린다구?

그럼에도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반민중적 구조조정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실업자와 노숙자들을 마치 경제활동의 의지가 없는, 혹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무능력자들로 매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무능만을 탓하고 있거나, 더욱 열심히 해야한다는 강박으로 자신의 삶을 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 시기 실업의 문제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독점기업으로의 자본의 집중과 독점적 소유구조,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지금의 경제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독점기업에게 있음을 말이다. 또 경제위기탈출에 있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정책은 정당한 우리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있으며, 이 실업의 문제 또한 우

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④ 더 이상 대학은 교육의 장이 아니다. - 수퍼맨 양성소로 전락한 대학 -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진리의 상아탑'이라 하는 대학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전문기술 대학으로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학부제와 계열별모집 시행과정에서 이공계열 실용학문만 살리고 인문, 기초과학 등의 기초학문은 장기적으로 도태시켜 학문의 존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다운 교육이 아닌 돈벌이가 되는 교육을 위한 대학구조조정 또한 자본의 논리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알고 교육 및 노동의 문제를 대학인의 삶에 대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간·학문간 위계 서열화를 철폐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전사회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여야 한다.

전국 60만에 달하는 대졸 미취업,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와 졸업을 앞둔 선배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뛰어다녀도 실업에의 위협은 떨쳐버릴 수 없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들의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는 정말 실업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보자. 실업의 문제를 더 이상은 개인 능력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로써 인식해야 할 것이다.

'97 우정희

● 수가 있는 자리

바다를 거닐고 싶다

'98 김종두

모래소리 흐느끼는
저 바다를 거닐고 싶다

붉게 물든 정열로
등 별 데워질 때까지

노을이 되어
바다에 핏빛 노래부르며

성난 파도 가르며
꿈 찾아나선 사내를 기다리는

애타는 섬 끝 아낙네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저토록 잔인하게
맑은 바다를 거닐고 싶다



강촌에는

인문계열 '99 김태균

지금쯤 강촌에는
그날의 흔적들만이 남아있겠지

드높게 타오르던
젊음의 포효가
이젠 그 잿빛 노을만 남기고

그대처럼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겠지

가로등 불빛사이로
사랑내음 풍기는 노랫말은
붉은 향기되어 흩어져도

저 산처럼 변치 않을
나의 사랑노래는

나처럼
그대를 향해서 흐르겠지

흐르고 있겠지

'97 정미숙

● 선배님! 우리 선배님!

- 90학번 김승정 선배님과 함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5월의 어느 날,

국립 중앙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90학번 김승정 선배님(이하, 김선배)을 만났다.

얼굴도 모르는 선배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많은 설레임을 갖게 했다. 순도 선배와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나 선배님을 만나기 전에 몇몇 질문 사항을 정한 뒤 우리는 선배님이 계시는 1층 정보봉사실로 갔다.

정보봉사실 데스크에 앉아 계신 검정색 정장 차림에 시원해 보이는 짧은 머리를 하고 계신 선배님의 모습은 깔끔하고 너무 앳되(?) 보였다. 우리는 선배님께 소개를 하고 선배님께서 사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나서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순 도 : 대학 시절 동아리나 학생회 일을 하셨나요?

김선배 : 음, 난 동아리는 안하고 조사 홍보부 활동을 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회원이 너무 많아서 면접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나름대로 부원을 선출했었지. 너무 재밌게 지내서 아주 좋았어.

효 선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김선배 : 이용남 교수님과 조인숙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다. 조인숙 교수님은 유일한 여자 교수님이셨고 이용남 교수님은 우리 학번과 특히 친했던 것 같애.

효 선 : 대학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선배 : 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지만, 난 너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애.

순 도 : 졸업하신 후에 바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셨나요?

김선배 : 나는 졸업 후에 계약직으로 있었어. 처음엔 상공회의소에서 일을 했는데 직원이 별로 없어서 책을 구입하는 일 외에 도서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했어. 그 때 단지 나는 어린 마음에 계약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정직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구.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있다가 소개로 연대 도서관에 계약직으로 일했었어. 거기에선 상공회의소와는 다르게 목록 일만 했는데 그 일만으로 그 곳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사서로서의 실력을 더욱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한마디로 목록을 통해 사서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눈을 뜬 셈이지.

순 도 : 국립 중앙도서관에 뜻을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정보를 주신다면요?

김선배 : 우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사서자격증 소지자나 도서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준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에서 주어져. 시험과목은 도서관 경영론, 자료조직론, 국사의 3과목이야.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가 입사한 이래로 아직 사원을 안 뽑고 있어. 언제 또 시험이 있을 줄은 모르겠다.

효 선 : 결혼하셨는데 일은 계속 하실건가요?

김선배 : 응. 난 이 사서 일이 매우 좋아. 그래서 계속 할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물러나야지. 도서관을 위해서 능력있는 후배들이 있어야 하니까.

순 도 : 다시 새내기로 돌아가신다면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김선배 : 내가 만일 새네기가 된다면 공부든 뭐든 한가지 목표를 세워서 그것에 매진 하고 싶어. 그

려면 아주 보람있을 것 같거든.

마지막까지 정성껏 답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은 위의 인터뷰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비록 한 시간 가량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선배님과 헤어질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나도 훗날에 후배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94 홍순도 '96 오효선

● 아름다운 글 - 엄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엄마와 나는 숨기내기를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방 저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 고서도 "여기도 없네"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에도 가보고 장독 뒤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

엄마와 나는 구슬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착하던 엄마도 구슬치기를 할 때는 아주 떴쟁이었다. 그런데 내 구슬을 다 탄 뒤에는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었다. 왜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는지 나는 몰랐다.

한번은 글방에서 몰래 도망왔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 길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다.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었다. 어물어물 했더니,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린다. 나는 한나절이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 자다 눈을 뜨니 엄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있었다. 왜 엄마가 우는지 나는 몰랐다.

나는 글방에 가기 전부터 '추상화'를 그렸다. 엄마는 그 그림에 틀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 놓았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추상화가 없을 때라, 우리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마 우리 엄마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엄마는 새로 지은 옷을 내게 입혀보는 것을 참 기뻐하였다. 옷 입히는 동안 내가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작년에 접어 넣었던 것을 다 내어도 길이가 작다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내 키가 지금도 작은 것은 참 미안한 일이다.

밤이면 엄마는 나를 데리고 마당에 내려가 별 많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두칠성을 찾아 북극성을 가르쳐주었다. 은하수는 별들이 모인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불행히 천문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그후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엄마는 나에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나는 왕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전복을 입고 복건을 쓰고 다니던 내가 왕자 같다고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왕자의 엄마인 황후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쁜 엄마가 나를 두고 달아날까 봐 나는 가끔 걱정스러웠다. 어떤 때는 엄마가 나의 정말 엄마가 아닌가 걱정스러운 때도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면 어쩌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엄마는 세 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영영 가버릴 것을 왜 세 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 피천득 수필집 「因緣」 엄마중

'97 조진선

● 문정과에 바란다~

문정과에 바란다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함께할 수 있는 16대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1학기 동안에 교육투쟁을 거치면서 학교측에 과별 요구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제출되었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기 설치 --6층에 자리해서인지 유난히 더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2. 냉난방 시설 설치 --현재 강의실에 선풍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판단과 함께 냉난방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3. 실습실에 종이구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아무런 논의 없이 단대가 바뀌어 버리고 사학과와의 인문계열 결정에 대한 해명과 이후 대책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5. 부족한 실습기자재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학교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구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의 사안들중

1. 실습실 맥킨토시 사용방법
2. 실습실 모델 업데이트
3. 실습실 오디오 설치 (?)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4. 휴강시에는 타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강의실 뒷문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요구해 보도록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6. 분필털이 기계수리는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 소문만복레

- ① 5월 7일부터 8일까지 3학년 M.T를 우이동으로 다녀 왔는데, 이우범 교수님이랑 누구 애인이랑 재 미있었습니다. -3학년
- ② 39번 학번고리 병개합니다. 일단 연락하세요. 016-218-7512 -'94 홍순도
- ③ 오늘 성년 맞은 '98학번들 그리고 그 외의 분들, 모두 축하~~!!!
- ④ 28번도 한 번 모이자구요. '97, '98 누군지 다 아니까 좋은 말 할 때 연락해라.. 017-317-4213

'98 김은희

● 혹시, 이런거 아세요!



♥ 여름에는 피부를 이렇게 관리하세요 ♥

여름은 자외선이 강하고 땀이 많이 나서 피부손질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땀은 바로바로 씻어주는 것이 좋으나 건성피부의 경우 잦은 세안, 세척은 피부자극의 큰 원인이 되므로 폼 클렌징을 쓰거나 약산성 세정제를 이용하여 피부자극을 줄여 주는 것이 좋다.

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킨케어 제품을 냉장고 등에 식혀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젖은 타올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을 해주면 모공수축과 피부 늘어짐의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가장 중요한 여름 피부손질은 땀과 함께 자외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세안 후 차가운 화장수를 듬뿍 발라 피부를 수축시켜 주고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션을 사용 시 T존 부위에는 얇게 바르고 볼에는 충분히 발라 준다. 또 메이크업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와 팩 손질도 잊지 않도록 하여 각질 제거를 해 준다.

자외선 차단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SPF또는 LPF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는 좋아지나,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에 바르고 2 - 3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이 가장 강렬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의 외출을 삼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외선에 노출된 후의 손질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세안 시 부드럽게 행귀 주고 비눗기나 침전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 비누를 사용하며 특히 피지분비가 많은 T존은 신경 써서 닦아준다.

피부 보습은 로션과 에센스, 팩 등을 이용하는데, 밀크로션을 듬뿍 바르거나 보습용 에센스를 여러 날 사용한다. 팩은 피부가 손상된 상태이므로 벗겨내는 타입보다 씻어내는 타입을 쓰는 것이 좋다.

♥ 여름피부에 좋은 자연팩 ♥



◆오이팩 : 피부의 열을 식히고 기미 주근깨 예방 및 미백효과. 찬 오이를 얇게 저며 불어 10-15분 후 떼어내고 세안하거나 오이 간것, 밀가루, 에센스 1-2방울을 섞어 팩을 한다.

◆당근팩 : 피부를 희고 건강하게, 수렴효과. 당근 간 것 3큰술, 레몬즙 1작은술, 밀가루를 섞어 거머즈를 덮고 그 위에 바른 후 20분 후 떼어 낸 후 세안한다.

◆수 박 팩 : 수분공급, 피부진정 및 회복효과. 수박 안쪽 흰색껍질을 저며 얼굴에 붙인다.

◆바나나팩 : 거칠어진 피부에 충분한 영양공급효과. 바나나 으갠 것 3큰술, 요구르트, 밀가루를 섞어 깨끗이 씻은 얼굴 목 위 가슴까지 바르고 30분 후 씻어낸다.

◆체리토마토팩 : 여름철 미용팩으로 좋으며, 미백효과. 건성피부에 적합하다. 체리 토마토 4-5개 간 것, 레몬즙, 밀가루를 섞어 얼굴에 펴바른 뒤 10-15분 후 씻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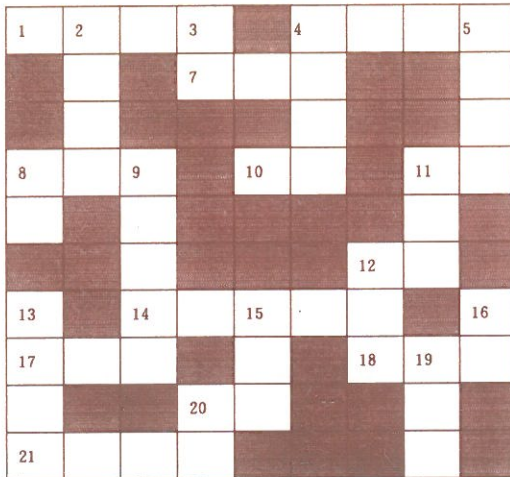
'97 우정희

학술편집부
5행시

학 - 학아 ~ ~
술 - 술자리가 마련됐다.
편 - 편안한 술자리가 있으니
집 - 집으로...
부 - 부리나케 달려와라.

● 상품이 보여요~

▶ 왕대박 행운퍼즐 ◀



- 가로열쇠 -

1.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킨 파란 알약
4. 사물을 건성건성 지나쳐 보다, 주0간0
7. 죄를 사해 준다는 티켓 (중세때 문제가 됐던..)
8. 시위현장에서 들려지는 노래, '쟁가'라고도 함
10. 소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
11. 다른 곳으로 옮기다
12. 손수 기록함, 또는 그 기록
14.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주어지는 자격증
17.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성질
18. (One's powers of) memory
20. 선택의 갈림길
21.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너무 쉬웠다고요? 그렇다면 세로도 맞춰 보세요.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세로열쇠 -

2. 00전쟁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물은 00국물
4. 주부들의 고생을 말해주는 습진
5. 세상고생은 모조리 다 해봄
8. 선물시장, 옵션등은 00적 성격이 강하다
9.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잘 되는 법
11. 방송사고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이비 목사
12. 물이 증발하여 기체가 된 것
13. 야구에서 진루한 모든 타자를 불러들임
15. 한국의 불법 아우토탄
16. 일 년 중의 시령, 캘린더
19. 영화제목으로 등장했던 목욕탕
20. 그 사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면을 복사해서 6월 11일 오후 4시까지 학술부(실습실, 조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처음이라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추첨일 : 6월 11일 오후 4시 실습실

상 품 : 1등(1명) 3.5인치 공디스켓 1박스

2등(2명) 3,000원권 복사카드 각 1매

'94 홍순도

● 만 든 이 들



학술편집부	
부 장	'95 이 상 욱
차 장	'98 김 은 희
총 무	'98 정 미 숙
부 원	'92 김 병 수 '94 홍 순 도
	'96 김 선 희 '96 오 효 선
	'96 노 은 미 '97 김 소 희
	'97 우 정 희 '97 조 진 선
	'98 김 지 혜